

고양시는 '봄'이다

글 정연자(고양시 일산서구 주업동)



휴일아침...

어둠을 뚫고 호수공원으로 향했다. 설 연휴에 늘어난 체중을 줄이자는 의미도 있었지만, 새롭게 운동을 시작해 보자는 차원에서였다. 다시 찾아온 추위 때문에 바람이 꽤 사나웠지만 마음만은 상쾌했다. 공원을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뛰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모두가 생기 있고 활기차며 건강해 보여서 좋았다.

호수공원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새벽마다 달리며 건강을 다졌고, 체력을 키웠던 곳이다. 공원의 사계(四季)는 언제나 아름다웠고, 나에게 건강과 관련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무릎 연골을 다쳐서 수술을 했다. 달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잠시 공원과 이별을 해야 했다. 그 후 늘어나는 체중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새벽을 달리면서 느꼈던 즐거움을 고스란히 접어야 한다는 건 나를 우울함으로 밀어 넣는데 충분했다. 그 때 집 근처에 고양 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작한 수영...

뒤늦게 수영을 배운지 4년이 되었고 꾸준히 건강을 다져왔다. 무릎을 다치기 전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한 무릎 덕분에 다시 공원을 찾았던 것이다.

내가 고양시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신도시가 막 생겨나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적응이 어려워 남편을 힘들게 했다. 그 결과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어린아 이처럼 보채기도 했다. 그 생각을 떠올려 볼 때면 늘 남편한테 미안해진다. 누군가가 내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꿈도 꾸지 않을 일이라고 할 만큼 고양시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설물과 편리한 교통은 물론 복지와 소통 그리고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늘 함께하는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인 고양시를 계절에 비교해본다면 나는 '봄'이라고 말하고 싶다. 생동감 넘치고 희망이 느껴지며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봄을 닮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봄에는 내가 좋아하는 호수공원에서 달리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설렌다.

